

나주 농특산물 브랜드 '나주오' 사용 품목 확대

사용 인증·사후 품질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만족도 높여

나주산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박차

"나주 농특산물 브랜드 '나주오' 믿고 사세요." 나주시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브랜드 사용 인증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나주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오(Naju Oh)"는 지난 2012년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나주시가 개발한 나주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로 2015년 상표 등록을 마치고 사용 중이다.

나주농업의 새로운 부흥을 표현한 나주오는 고유명사인 지역명칭 '나주'에 감탄사 '오(Oh!)'를

조합한 합성어 '놀라움'과 '기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랜드 사용 허가는 매년 4월 신청서 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2년 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나주 지역에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구축한 업체와 농협을 포함한 생산자단체 등이며, 나주시가 실시하는 총 4단계의 간단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심사는 크게 '농산물우수관리(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무',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 상태와 품질관리 관련 시설·기자재 확보 여부', '자체 품질관리 수준과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브랜드 사용 허가 이후에는 분기별로 출하 상태와 포장재 관리 실적 점검 등을 통해 고품질 브랜드 명성을 지켜 나가고 있다.



나주시로부터 '나주오' 브랜드 사용 인증을 받은 도라지배즙 제품.

현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포장재와 포장용기에 '나주오'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나주시가 업체를 대신해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나주오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26개에 인증 업체는 나주시공동조합법인, 나주배원에농협, 알곡영농조합법인 등 3곳이다.

주요 품목에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를 비롯해 멜론, 사인머스켓, 복분자, 초당옥수수, 한라봉, 참외, 대보, 토마토, 풋고추, 미나리, 양파, 가지, 피망, 애호박 등 과일·채소류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도라지·배즙을 비롯해 청약콩·팥·서리태·녹두·백태 등 가공식품과 곡류까지 브랜드 사용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오 농특산물은 나주시가 철저한 사후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만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나주오 농특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동학군 넘었던 장성 갈재 옛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된다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이어지는 갈재 옛길(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다. 지정 명칭은 '삼남대로 갈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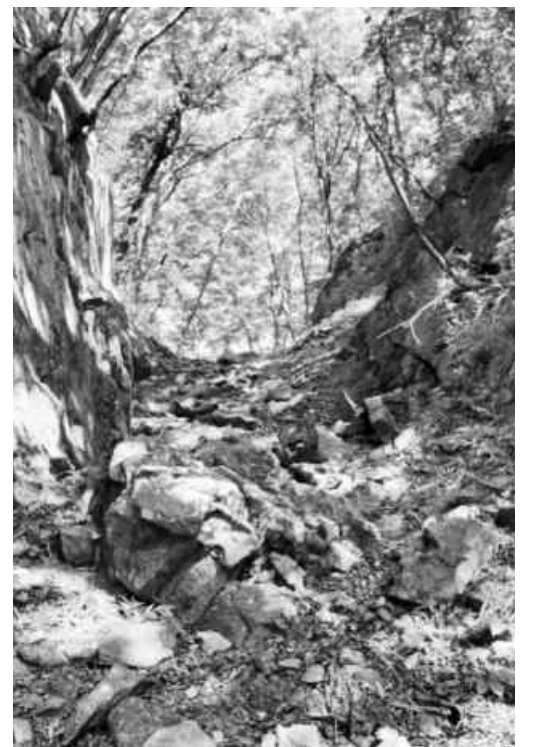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최근 장성군 갈재를 포함한 총 6곳의 옛길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옛길'은 말 그대로 예전부터 다니던 길을 뜻한다.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의 원활한 이동과 지역 구분 등 행정적인 목적으로 주로 쓰이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상업의 발달과 맞물려 왕래가 활발해졌다.

당시 이용이 빈번한 도로를 '대로'로 승격했으며, 이때 장성군 갈재가 포함된 삼남대로를 비롯한 9개 대로 체제가 완성됐다.

대로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연결됐으며, 주요 민간교역로로서 기능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대로는 본 모습을 상실하고 신작로가 되고 말았다. 또 이



후에는 남아있던 옛길 중 상다수가 임도(林道)로 활용되면서 원형이 보존돼 있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이번에 국가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 옛길은 한양에서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으로 이동하는 삼남대로 970리 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갈재는 갈대가 많은 고갯길이란 뜻으로, 고지도에는 '노령(蘆嶺)' 즉 갈대가 울창한 산으로 표기돼 있다. 인접 지역 노령산맥의 명칭이 갈재에서 비롯됐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갯길 정상에는 장성 부사 홍병위를 기억하기 위해 새겨놓은 불망비(不 망碑·1872년)가 남아 있다. 갈재 옛길은 장성군의 관리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현종이 거란족의 침략을 피해 나주로 피난할 때 건넌 길목이 있으며,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농민들이 정읍으로 이동하기 위해 갈재를 넘었다고 전해진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대상자 모집

화순군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대상은 5명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화순군은 올해 초 주거비 대상자 13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천지길 온라인 걷기대회

스마트폰 인증 상품권 증정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자연과 사람을 잇는 함평천지길 온라인 걷기대회'가 열린다.

스마트폰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다운받아 함평군 커뮤니티 '매일매일 걷는데이'에 가입 후 '함평천지길 온라인 걷기대회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함평천지길을 직접 걸으면서 사색 정원, 사랑정원 등 8개 코스 중 6개 이상 지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스탬프를 받아 인증하면 된다.

이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함평사랑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명품청자 10월 한 달간 40% 할인 판매합니다



토요 경매로 30점 판매

강진군이 10월 한 달간 강진 명품 청자를 40% 할인 판매한다.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청자축제(10월 1~7일)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면서 강진청자쇼핑몰(www.gj-celadon.com) 등에서 할인 가격으로 판다.

명품청자 토요경매도 축제 기간 2회에 걸쳐 30점을 판매한다. <사진>

한편 올해로 49번째인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 유튜브 채널 '진'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된다.

강진 스마트 퀴즈쇼를 시작으로 힐링 버스커, 강진 청자골 온라인 콘서트, 읍면 노래자랑, 문화예술 힐링데이, 강진명품 청자 경매, 특산물 세일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축제 기간 명품청자를 40% 할인해 판매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중·장흥여중 통합 2023년부터 남여공학 전환할 듯

장흥교육지원청 설문 65% 찬성

11월 추진위...내년초 승인 절차

장흥지역 9개 중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남녀로 분리돼 있는 장흥중과 장흥여중이 오는 2023년부터 남여공학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흥교육의 숙원과제였던 것이 남여공학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장흥교육지원청은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일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 이상의 학생(학부모)들이 남여공학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장흥교육참여위원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남여공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와 서명운동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남교육청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흥중과 장흥여중이 남여공학(가칭 장흥제일중)으로 전환되면 수업태도와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면 학도풍토

성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한 공감대가 우선인 만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946년 개교된 장흥중학교는 11개 학급에 학생수는 262명이며, 1966년 문을 연 장흥여중은 8개 학급에 학생수는 191명이다.

한편, 전남 도내 읍단위 지역에서 남여공학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장흥을 포함 보성, 강진, 고흥, 완도, 영암, 구례, 영광, 담양, 장성 등 10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